광주시, 폭설에 고립·방치된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

22일부터 사흘간 기록적인 폭설 내려 주차 · 버스전용차료 위반 과태료 유예

광주에 사흘간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 에 고립된 차량들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가 폐쇄회로(CC) TV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 까지 사흘간 광주에 역대 두 번째인 신적설량 (32.9cm)과 역대 세 번째 최심 적설량(40cm)을 기록하는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마비

지난 22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쌓이 고 도로가 결빙되면서 퇴근길에 나섰던 차량 들이 곳곳에서 고립됐다.

23일 오전 출근길 차량 운전자들도 눈길을 뚫지 못해 차량을 도로변이나 주차금지 구역 에 두고 빠져 나왔다.

폭설에 고립된 채 방치된 차량들은 24일 오 후까지 대부분 소유자들이 이동 조치했다.

하지만 CCTV에 주차 위반이나 버스전용차 로 위반으로 단속될 처지에 놓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부터 24일까지 폭설 로 인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버스전용차 로 위반 차량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 도록 지시했다.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한 상 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5개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도록 유선으로 통보한 뒤 공문으로도 전달했다"며 "재설작업 중 통행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방치 차량은 경 찰에 연락해 이동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대설 경보가 내려진 23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도로에서 시민들이 눈길에 바퀴가 헛도는 차량을 밀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쉽게 찾는다"…전남도, 사물주소 부여 확대



2019년부터 다중이용시설 1만1000곳에 사물주소 부여

전남도가 생활밀접 다중이용 시설에 사물 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공공・민간에서 관리하는 전기차충전소 798곳괴 노상·노외 주차장 2551곳 등에 새롭게 사물주소를 부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 시설물 의 위치를 특정해 표시하는 정보다.

그간 대피소,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비 상급수시설, 인명 구조함, 주차장 등 위치 찾 기가 어려운 안전·편의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해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어 도민 생활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도민생활 과 밀접한 시설물인 지진 옥외대피소 495곳, 버스정류장 9332곳, 소규모 도시공원 431곳, 비상 급수시설 150곳, 인명 구조함 1415곳 등 총 1만1000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이미 부여된 사물주소에 대해선 주소를 알려주는 사물주소판 설치를 통해 긴급 상 황 발생 시 위치 안내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부여되는 사물주 소는 향후 포털사이트나 내비게이션 등에 제공될 예정이며 현재 주소정보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맞춰 충전소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며 "도민 생활편의를 위해 주소정보 시설물을 지속해서 확충하겠 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탄력…설계예산 국회 통과

이전 기본설계비예산 3억9천만원 국회 의결…내년 9월부터 인왕봉 상시 개방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

24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에 따르면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기본설계 비 예산 3억9000만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사업은 이 번 예산 통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61년간 마음껏 오르 지 못했던 무등산 정상을 광주시민께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무등 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을 국방위 예산심사 과 정에서 추가 반영하고, 예결위 위원과 정부 관 련 부처를 설득한 끝에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1995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처음으로 건의한 이후 20년 만인 2015년이 돼서야 광주시와 국방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간 이전 협약이 체결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무등산 정상에서 광주



지난 9월29일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제8331부대에서 방공포 대 이전 관련 토론회가 열리기 앞서 송갑석 국회의원 등이 부 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시, 국방부, 공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현장 합 동회의를 열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며 사업의 물꼬를 텄다.

이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 방부장관으로부터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의 지를 확인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무등 산 방공포대 이전 협의회는 지난달 10일 1차 회의를 열고 2023년 9월 무등산 정상부(인왕봉) 상시 개방을 확정했으며, 지난 20일 광주시와 공 군, 국립공원공단은 구체적 협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슬비기자

전남대 여수캠퍼스 취업률 상승…건축디자인과 86.7%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취업률이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대에 따르면 여수캠퍼스의 지난해 취업률은 57%로 2020년 49.8%에 비해 7.2%

거점국립대 취업률 평균 상승폭 3.1%보다 두 배이상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 취업률 상승 폭이 가장 큰 전북대 4.8%보다 3.4% 높다.

학과별 취업률은 건축디자인과가 86.7%로 가장 높았으며 냉동공조공학과 70.8%, 화공생 명공학과 65.4% 순이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학기당 40여개에 달하 는 다양한 취업프로그램를 운영해 효과를 발 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수캠퍼스는 여수국가산단 인사담당자 초 청 강연, 현장견학, 진로동아리, 취업정독실, 인 공지능(AI)면접실습실 등 재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박복재 부총장은 "지자체·대학·지역산업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이 재학생들의 일자리 창 출로 이어졌다"며 "360억원을 투입한 최첨단 기숙사와 학생성공홀 2025년 완공, 도서관 리 모델링이 완료되면 학생들이 더 좋은 시설에 서 학업과 취업 준비까지 매진할 수 있을 것이 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지자체 간 재산분쟁 해결… 전남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전남도가 지자체 간 공유재산 분쟁을 해결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려상과 특별 교부세 3000만원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광주광역시, 영암군 등 '지방자 치단체 간 협업 강화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 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 민 원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이다.

전남도는 광주광역시와 재산 승계 분쟁 해 결을 위해 2016년부터 10회 이상 실무진 협의

1986년 광주시가 광주광역시로 승격할 당시 전남도 소유 공공시설 등이 광주광역시에 승 계됐지만 일부 누락된 재산들이 있어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상호 협의를 진행

이를 통해 전남도는 도로 등 공공용재산 22 필지(3348.1㎡) 4억3982만7000원 규모를 인계 해 분쟁을 해결했다.

또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에 있는 전남도 일반재산 인근 사유지 소유자들 이 진입로 부재 등을 이유로 매각을 요청한 민 원을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을 통해 영암군과 협업해 부지 교환을 통해 해결했다.

이길용 전남도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공유 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